

world publishing

01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한《에덴의 동쪽》,

힐러리의 자서전 따돌려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의 자서전 《살아 있는 역사》를 출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서 판매에 있어서는 미국의 인기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의 상대는 못되고 있다.

전 미국 영부인의 알려지지 않은 백악관 이야기 등 사적인 이야기는 공격적인 홍보 투어로 지난 달 세계출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공교롭게도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책이 출간된 지 9일 후 오프라는 토크쇼에서 북클럽 캠페인을 다시 시작해, 존 스타인벡의 소설 《에덴의 동쪽》을 추천도서로 선정하였다. 바로 그날 스타인벡의 51년이나 된 고전은 미국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목록 2위로 뛰어올랐다. 힐러리 클린턴의 자서전을 제친 것은 물론 승승장구하고 있는 해리 포터 최신작을 추격하고 있다. 이 소설은 몇 주 만에 75만 부가 팔렸고 〈뉴욕 타임스〉의 소설 페이퍼백 베스트셀러 목록 1위에 올랐다.

팬권출판사는 성경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재창조한 이 소설을 120만 부 발행하였다.

오프라 윈프리가 북클럽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1만 5,000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오프라 윈프리는 존 스타인벡의 작품이 북클럽을 다시 시작하는 동기를 주었다고 말했다.

02 독일 새로운 저작권법 통과, EU 가이드라인 중심

독일이 불법복제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독일연방상원은 지난 7월 11일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법률적 테두리는 EU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독일연방상원이 중재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개정사항들 중 한 가지 사항만이 법률로 채택되었다. “불법적으로 제작된 원본일 경우 사적인 용도로 텍스트나 CD를 복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터넷에서 음악, 영화, 컴퓨터 게임 다운로드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처벌받게 된다”고 이 법안은 못박고 있다.

독일 출판계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가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이에 따라 지적소유권 보호가 위협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입법에 대해 시민당, 녹색당 그리고 기민당·기사당이 찬성하였으며 자민당만이 반대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학교, 대학교,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의 수업 및 연구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는 앞으로도 신문 혹은 잡지의 각 기사들, 저술의 부분들 혹은 양이 적은 저술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걸 허용했다.

03 마이크로소프트사, 여름 맞아 e-book 무료제공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올 여름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20주 동안 일주일에 세 권의 e-book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제조건은 최신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 리더”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PDA나 일반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이전 버전이 저작권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새 버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간주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미국의 대표적 작가들의 최신 소설들

의 판권을 사들였다. 마가렛 애트우드, 에이미 탠, 엘모 레오너드, 존 업다이크의 최신작들을 새 버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정말 읽고 싶어하는 책들을 여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읽혀질 수 있는 모든 책들이 우리의 구매 대상입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리프 구렌 부사장은 강조했다.

이번 여름행사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를 위한 시험이기도 하다. 60종의 책들이 20주 동안 소개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e-book버전과 종이책 버전이 팔렸는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리팀은 각 e-book에 주문서를 첨부하여 종이책을 원하는 사람은 종이책을 주문할 수 있게 했다. 유저 및 독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비스를 독일 혹은 불어 문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4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희소식,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점자판 발간

시각장애 어린이들도 이제 곧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읽을 수 있다. 지난 7월 14일 13권으로 구성된 점자본 해리 포터의 첫 일곱 권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국립점자출판사National Braille Press에서 발간되었다.

나머지 책들은 2주 후에 발간될 예정이다. 일반책과 점자본의 눈에 띄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점자본은 스크래스트 출판사의 종이책보다 훨씬 두껍다. 무게가 8킬로그램에 달한다. 첫 발행부수 역시 일반책과는 비교도 안 되는 500권에 불과하다. 국립점자출판사 출판부 관계자에 의하면 점자책을 읽기 싫어하던 어린이

들도 해리 포터 점자책을 읽으면서 책읽기에 취미를 붙인다고 한다. 점자책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NBP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멜론 재단의 후원으로 ‘Read Books: Because Braille Matters’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미국 영부인 로라 부시와 마크 브라운이 의장을 맡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당면 목표는 점자책들을 취학 전 시각장애 아동들의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다.

05 독일출판계 매출 2% 감소

작년 독일출판계의 매출이 전해에 비해 2퍼센트 감소해 92억 유로(12조5,00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출판서적상협회 디터 쇼어만 회장은 이같은 통계를 발표하면서 “도서시장은 매출 감소와 싸워야 하지만 이번 통계가 출판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출판계는 지속적인 세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을 받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다른 개별 산업분야에 비해 출판시장의 매출기대 전망이 여타 분야의 평균수치보다 높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독서는 39개의 가장 인기 있는 여가활동 중에서 여덟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포츠, 연극, 오페라, 공연보다 앞서 있다. “독서 장려를 위해 우리는 계속 투자할 것이다. 독서경쟁력은 모든 교육의 관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활동의 기본이기도 하다”라고 쇼어만은 말했다. 그는 2003년 독일 출판계 매출은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

문승현_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